

광주에 올해 간선도로망 대폭 늘어난다

광역도로·혼잡도로·산단진입도로 등 9건 시, 교통불편 해소·사람중심 도로환경 조성

광주시는 올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간선도로사업은 총 9건으로 광역도로 1건, 혼잡도로 5건, 산단진입도로 3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모두 확보했다.

먼저, 광역도로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 '광주하남-장성삼계간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도는 각자 구간에 대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과 공사가 추진된다.

광주 광산구 장수교차로에서부터 임곡동 황룡강 구간을 거쳐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양저수지 상무평화공원까지 15.4km 기존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되며, 노선도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할 계획이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월전동

-무진로 간, 북부순환도로(1공구), 용두-담양 간 등 4건의 계속사업과 각화동 동고개-제2순환도로 구간 1건의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무지구-첨단산단간' 사업은 영산강 대교 구간을 중점 추진 중이며 상무지구 시청사 뒷편과 첨단 보훈병원 간 4.98km를 잇는 4-6차선 도로가 신설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빙고골대로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현상이 완화되고, 동시에 첨단지역에서 상무지구 도심까지 자연경로가 신설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여건도 마련될 전망이다.

'월전동-무진로 간' 사업은 상무교차로 확장과 공항 앞 동송정지하차도의 구조물 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 말 상무교차로에서 상무로 구간이 우

선 개통될 예정이다.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올해 1공구 일곡교차로~한새봉~용두동빙고골대로까지 3.22km 구간의 보완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할 방침이며, 일부 우선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시가 지난 2018년 5월 북구 장동동 동고개에서 일곡교차로까지 3.52km 구간의 2공구를 개통한 이후 2020년 교통량 조사에서 일곡교차로의 교통량 증가율이 20.2%를 기록해 광주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분동동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잔여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두-담양 간' 사업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에 어

려움을 겪어왔으나, 올해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내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각화동 도로-제2순환도로 간 혼잡구간 개선사업은 지난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우회해 이용하던 도로를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엔 공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에서 화순방향 제2순환도로 진입이 가능해 각화동 동문대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진입도로사업은 계속사업 3건을 지속 추진한다.

광산구 평동3차산단과 조성 공사가 한창인 남구 대촌 에너지밸리산단을 잇는 6.4km 구간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단계

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비 구간인 영산강-남구 석정동 2km 구간은 올 상반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시비구간인 광산구 유계동 동곡식물원-영산강 1km 구간은 국비 구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첨단3지구 진입도로'는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대안 노선선정 등 설계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하고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재식광주시교통건설국장은 "올해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이 본격도에 안착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면서 "이 사업이 교통체제 완화와 도로주행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박범계 "엄정 수사로 책임 물을 것"

광주 붕괴 현장 방문... "중대재해 새 양형기준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관련 전문 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조종태 광주교감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동행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

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 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등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엄정하게 수사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구성하고, 기구 권고에 따라서 총장이 신속하게 이행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 검사(검사장)급 보직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 불만과 비판 여론에 밀려 인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조동 수사방안 모색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등 연구를 맡기로 했다. /홍승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구 운천저수지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분선9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관내 건축건설공사 현장 점검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등 방문...콘크리트·철근조립 확인

광주시는 지난 21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9구간(운천저수지) 건설현장과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등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건축건설공사 사고방지 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

장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 및 동절기 안전대책을 듣고 운천저수지 내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및 철근조립 작업 등 시공현장을 살펴봤다.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은 품질 확보에 취약하므로, 소정의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온풍기, 천막 등 보양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보온조치한 후 강도시험 등 건설 품질 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공할 것을 지시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시청·백운

광장·광주역-전남대-첨단-수원-시청을 연결하는 연장 41.843km의 사업으로 지난 2018년 공론화를 마치고 2019년 9월부터 현재 1단계 공사(17km)가 28.8% 공정률로 진행 중이다.

이어 이 시장은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광주시, 서구, 건축구조·건설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건축안전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련 시방서 준수 여부 등 품질관리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시장은 시방서와 도면 등 설계에 따라 공사하고 감리자는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김희재 "여순사건 유족 한 풀어지길"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신고가 74년 만에 시작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1일부터 여수·순천지역 등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고를 받는다.

다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사진)은 이날 "유족분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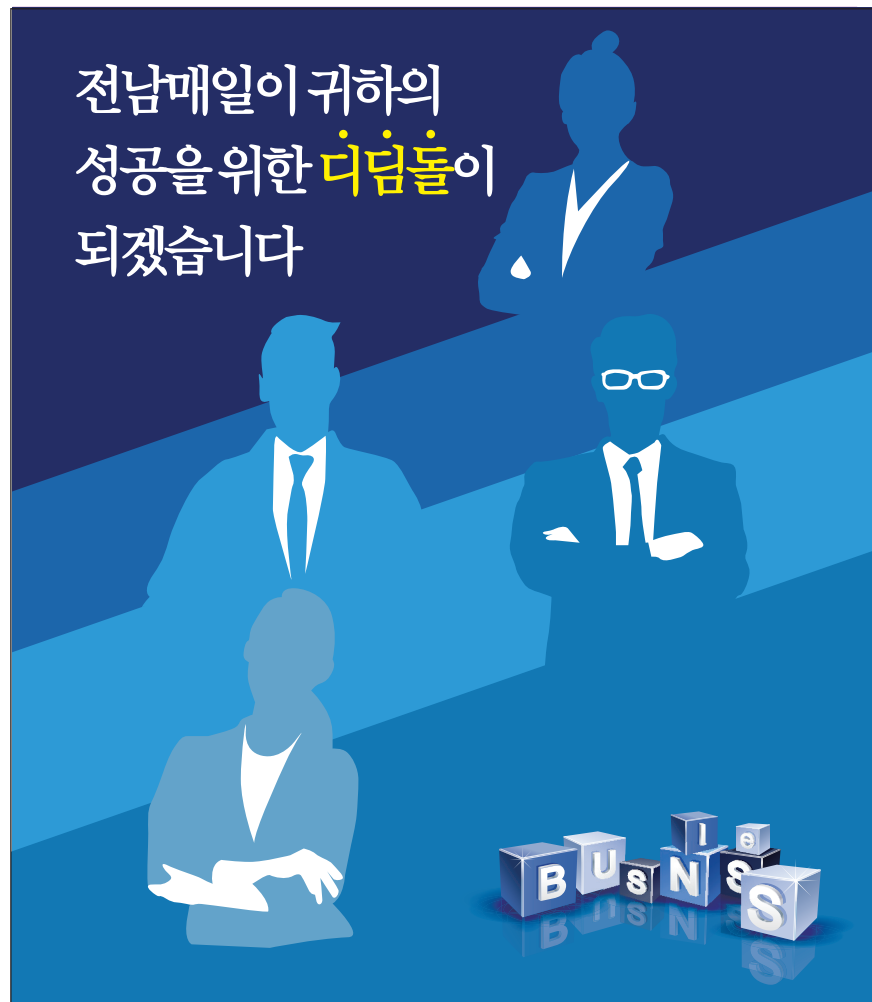
신고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신고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도에서 신고센터를 읍·면·동 279곳에 설치하고 사실조사 인력도 50명까지 채용할 방침이다.

여수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본관 9층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진상 규명 신청 접수와 조사,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위한 조사 등을 진행한다. 실무위원회에는 전남도 김영



록 지사·문금주 행정부지사·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전남 교육청 위경중 교육국장, 전북도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경남도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등 6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던 유족과 피해자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줄리아홀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 저명인사 초청 최상급 전문 강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